



2024년 12월호

연말엔 나눠야 제맛!

쉽 없이 달려 온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연말, 아침밥을 거르고 출근하는 근로자를 위해 김밥을 만들고 홀로 지내다 생을 마감한 어르신들의 집을 정리해 주고, 김장김치와 연탄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며 가슴 따뜻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아왔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반값 아침을 준비한 영지뜰협동조합 조합원들.

- 반려견 홍보대사 선발대회 ... 8-9P
- 삶의풍경 신공미를 심계택 이야기 ... 12P
- 원주의 예술가들 여니 윤수연씨 ... 14P
- 원주군청 근대5종 김예나 선수 ... 16P



김장 나눔 현장을 찾아서

하하호호, 새빨간 마음일랑 뜨겁게 비벼봅시다

운주면새마을부녀회

성큼 다가온 겨울이 새벽 공기를 싸늘하게 가라앉히는 시기, 그럼에도 운주면 공유부뚜막 안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훈훈한 열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슬픔은 덜고, 기쁨은 나누기 위해 모인 이들과 함께한다면 추위는 눈 녹듯 사라진다.

부뚜막에서 김장하는 날

부쩍 추워진 지난 5일 아침, 운주면행정복지센터 뒤편 공유부뚜막 앞마당으로 들어서면 허리를 굽혀 절임 배추를 손질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날은 운주면새마을부녀회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3일차다. 첫 날에는 배추를 손질하고, 이틀날에는 육수를 끓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바깥에서 공유부뚜막 안으로 커다란 소쿠리에 가득 쌓인 배추를 옮기는 사람들 중에는 새마을부녀회 연합회장 강래연 씨도 있다. 몇 포기나 하는 거냐는 물음에 그는 “350포기 정도다. 매년 하는 포기 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안에서 벌써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는 작업이 한창”이라며 이끄는 래연 씨의 손짓에 따라 공유부뚜막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함께 합을 맞춰 김장해온 세월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은 운주면의 큰 연례 행사 중 하나다. 해마다 돌아오는 김장철에 운주면 각 마을의 부녀회장들을 포함한 운주면새마을부녀회, 운주면장과 부녀장, 여성단체협의회장까지 총출동한다. 이번에는 운주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스무 명이 넘는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있으면 동선이 꼬일 법도 한데 함께 김장이라는 큰 행사를 치러온 세월 덕분인지 각자 맡은 역할을 능숙하게 해낸다. 마치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듯 척척 잘 흘러가는 작업을 보면 처음부터 김장이 순조로웠을 것 같은데, 래연 씨가 말하길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한다.

“올해 기후가 많이 이상했잖아요. 여름 내내 기온이 너무 뜨거웠다가 한바탕 폭우가 내리기도 했고요. 그 탓에 올해 농작물 농사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 그중에서도 배추값이 엄청 비싸서 수급



공유부뚜막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 운주면새마을부녀회원들.

수년째 연례행사라 손발 척척
올해 사흘동안 350포기 담가

경로당과 홀로어르신들께 전달

하기 힘들었죠.”

다행히도 매년 김장용 배추를 거래하던 농장에서 계획했던 수량을 채울 수 있었다. 래연 씨는 “배추, 고추, 마늘 등 김장에 필요한 재료 대부분을 항상 이 지역에서 농사지으신 분들로부터 사온다. 봉사활동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주문한 것보다 더 얹어주시기도 한다”고 웃었다.

맛있는 김치의 비결은 ‘정성’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배추도 어느새 끝을 보인데, 작업하는 내내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래 서 있느라 힘들었던 부녀회장 몇 명과 자리를 바꾼 직원들이 남은 김장에 박차를 가했다. 잠시 휴식을 얻게 된 원장선마을 현옥춘 부녀회장은 김치 즐기 하나를 찢어서 맛보기도 했다.

“다 같이 김장하면서 이렇게 맛보는 것도 재미 중 하나지. 내가 한번 먹어보니까 간이 아주 맛있게 잘 됐네~.”

이미 11월에 김장을 마친 수청마을 이정례 부녀회장은 “과일 갈아서 천연 단맛으로 간 맞추고, 무엇보다 우리들 정성이 듬뿍 들어가서 맛있다”고 말했다. 매촌마을 안성미 부녀회장은 “예전에는 모든 재료를 잘게 썰어서 양념을 만들었는데,

갈아서 하면 버무리기도 편하고 나중에 배추에 간이 잘 들어서 더 맛있다”고 설명했다.

김장 후 즐기는 잔칫상

포장을 마친 후 차곡차곡 쌓인 상자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진다. 이날 완성된 김치는 운주면의 각 마을 경로당과 홀로어르신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겨울철 경로당에서 모여 점심 식사하는 일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김치는 빠져서는 안될 반찬이다. 경로당에 잘 나오지 않는 홀로어르신들은 부녀회장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직접 찾아간다고 한다.

김장을 마무리하는 와중 한편에서는 콩나물 무침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사흘 내내 봉사활동에 힘쓴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옥춘 어르신은 “고생한 부녀회장들, 면 직원들 이랑 같이 식사하려고 만들고 있다. 반찬 가짓수가 많지 않더라도 함께 먹으면 맛있다”고 말했다. “예전부터 김장이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서 하는 잔치 중 하나였어. 상부상조해서 김치 담근 다음에는 마당에서 수육도 삶고 나눠 먹었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그렇게 크게는 안 하지만 여전히 김장 같이 한 사람들끼리 밥 한끼 먹는 건 여전히.”

고된 김장이 끝나고 다 같이 밥 한 술 떠먹으면 그만큼 맛있는 게 없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느끼는 보람,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한 기쁨이 사람들을 뭉치게 한다. 나눔의 행복을 아는 이들 덕분에 운주의 겨울은 올해도 따뜻하다. 🍵



운주면새마을부녀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는 마을 경로당과 홀로어르신들에 전달되어 겨울동안 든든한 밑반찬이 되어줄 예정이다.



작은 선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

11월 27일 고산의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도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 여성국 및 협의회 회원들,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 직원들까지 22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직접 담근 김치를 13개 읍면의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 지회로 2통씩 전달했고, 다시 각 읍면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귀농·귀촌인, 청년 등에게 보내졌다. 또한 운주면과 동상면의 농촌유학센터, 신상마을회관, 아동센터에도 따뜻한 손길이 닿았다.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해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 여성국은 이번 행사 참여 소감에 대해 “맛과 정성, 그리고 마음을 가득 담은 김치를 전달드렸다. 모든 분이 올겨울 작은 선물을 통해 따뜻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생강차도 준비했지요

비비정마을

12월 13일 삼례 비비정마을 경로당에서는 꽃무늬 누빔조끼, 이른바 ‘김장조끼’라 불리는 패션으로 무장한 어르신들이 손수 김치와 생강청을 담갔다. 친근하면서도 괄괄한 성격으로 자칭 타칭 ‘건달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어르신들이다.

비비정마을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농한기 문화로운 마을생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등을 나눴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김장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특별하게도 손수 손질한 생강으로 생강청도 담갔다. 비비정마을 안미옥 이장은 “농한기를 이용해 마을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 김장하고, 생강차도 만들었다.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 매년 부듯하다”며 “앞으로도 마을주민 모두가 행복한 비비정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비정마을 건달 할머니표 김장김치와 생강청은 취약계층과 홀로어르신의 따뜻한 겨울 생활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새벽마다 반값 아침 준비하는 양지뜰협동조합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드리리다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 등
새벽 다섯시부터 준비
-
200명분 반값 제공
바로 동남 정도로 인기

지난 5일 새벽 5시. 칠곡 같은 어둠 속에서도 완주경제센터 뒤편 옛 가치식당 주방은 환하게 밝았다. 조심조심 문을 열고 들어서니 칸칸이 나뉜 주방에서 예닐곱 명의 사람들이 분홍색 앞치마와 두건, 마스크를 쓰고 음식 조리에 한창이었다. 길쭉하게 잘라놓은 단무지와 갓 부쳐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색 달걀지단이 수북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김 위에 흰쌀밥을 올리고 갖가지 채소며 달걀을 얹자 어느새 김밥 한 줄이 똑딱 완성됐다. 그렇게 완성된 김밥들이 한 칸에 차곡차곡 쌓여 갔다. 다른 쪽에서는 싱싱한 양상추에 소스를 두른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이들은 모두 '완주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식사(이하 반값 아침식사)' 시범사업을 맡은 양지뜰협동조합(대표 김정은·이하 양지뜰) 사람들이다. 완주군이 추진하는 반값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아침밥을 거르고 출근하는 산단 근로자를 위해



새벽부터 아침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양지뜰협동조합 조합원들. 이들이 만든 반값아침은 금세 동남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20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완주산단 근로자복지관 1층 어울림 카페에서 운영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김밥 1,000원, 샌드위치 2,000원, 샐러드 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준비하는 하루 물량은 김밥 100줄, 샌드위치 50개, 샐러드 50개다.

이날 아침 6시 40분쯤 어울림 카페에 1차분의 물량이 도착했을 때 벌써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밥 등은 정돈을 하기도 전에 근로자들의 취향대로 팔려나갔다. 김밥을 만들고 실어 온 박은혜 씨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느라 식사를 못 챙기고 출근한 분들이 간단하게 드시기 위해 이렇게 오는 것 같다"며 "1차로 50명분을 챙겨오는데 금세 동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1차분은 7시가 되기도 전에 모두 팔려나갔다.

반값 아침식은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다. 그만큼 아침을 거르고 일터로 나서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김밥을 사러 온 한 근로자는 "요즘 아침이 정말 즐겁다. 김밥이며 샌드위치를 먹으니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전에는 새벽같이 나와서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다. 집이 용진이라 아침 식사를 못 먹거나 회사에 와서 컵라면을 먹곤 했는데 아침, 점심 직원들 것도 함께 샀다. 가격도 저렴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새벽같이 김밥을 만들고 운반해 판매까지 하고 있는 박은혜 씨 "새벽같이 일어나 좀 피곤해도 하루 200명의 아침 끼니를 해결해 준다는 걸 생각하면 일이 즐겁다"며 "음식이 다 떨어진 뒤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팔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양지뜰 김정은 대표는 "원래 계획은 오전 9시까지 판매하는 것인데 빠르면 7시 30분, 보통 8시가 되기 전에 준비한 음식이 동이 난다"며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하고 또 아침 판매가 마무리되면 또 내일 음식 준비를 해야 해서 고단한 일이지만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고 있는 직원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망자를 위한 원계곡마을 주민들의 가슴 따뜻한 배웅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소풍 마친 그대 잘 가요

세입자 사망 후
세간살이 1년 남짓 방치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고
행정이 손 보태



지난 9일 구이면 모악산자락 원계곡마을의 허름한 주택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단체 작업복을 입은 3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은 집 안에서 집기며 세간살이를 끄집어내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트럭에 싣거나 마당 주변에 널려 있는 각종 폐기물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주택은 지난 1월 세입자였던 임선이(90)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비어있었다. 할머니는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를 치렀다. 이후 집은 어르신의 유류품과 각종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사정을 행정에 알렸고 구이면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결국 이날 돌아가신 마을 어르신의 유류품과 집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계곡마을 이상섭 이장은 “홀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르신의 떠난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게다가 할머니가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빌려준 건물주에게 집안 정리를 해주는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원계곡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구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인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전호순, 최은아), 의용소방대(대장 이진영), 원계곡마을청년회(이장




무연고 어르신의 유류 정리작업을 마친 이들이 활짝 웃고 있다.

이상섭) 등 4개 단체 3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1시간 이상 이뤄진 빈집 환경정비 작업은 많은 봉사자들 덕분에 방은 장관을 견어내 말끔하게 정리되었고 여기저기 방치돼 있던 세간살이와 폐기물들은 깨끗하게 치울 수 있었다. 이날 수거 정리한 폐기물만 해도 1톤 트럭 10여 대 분량이 넘는 양이었다.

구이면주민자치위원회 박인철 위원장은 “연말 지역 주민과 행정이 함께 나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 구이주민자치위원회는 평소에도 집수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면서 “작은 일이라도 힘을 합치면 구이면이 더욱 행복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은아 구이면장은 “이번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및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며 “매서운 추위에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각 단체 및 마을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불고기 나누는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맛있게 드실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지요

열정적인 서로를 보며 보람
맛있게 재운 불고기는
한부모·조손가정에 전달

지난 9일 봉동희망나눔가게 안팎으로 20여 명의 사람들이 분주했다. 동절기를 맞아 봉동읍의 취약계층 가구에 불고기를 전달하는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국인숙·김의철) 위원들이다.

이날 위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각종 채소 등 재료를 손질하고, 고기를 양념에 재웠다. 정성스레 만들어진 불고기는 위원들을 통해 각 가정과 봉동희망나눔가게에 전달됐다. 위원들은 불고기와 함께 겨울철 안부,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건넸다. 이들의 불고기 나눔이 유독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데에는 진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불고기 나눔 행사는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마다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 중 하나로, 추워진 날씨 탓에 건강 및 영양상 어려움이 생기는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수혜 가구는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 팀이 정기적으로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또한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주변 이웃에 방문해 위기가구 발굴을 돕고 있다.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위원들이 불고기에 들어가는 채소를 손질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족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활동해 온 김동년 부위원장은 “홀몸노인,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늘 새로운 보람의 연속이라 지칠 틈이 없다. 가끔 힘들 때가 있어도 열정적인 서로를 위안으로 삼고 활동한다”고 말했다.

국인숙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10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에 더 알차고 따뜻한 복지사업을 꾸릴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의철 봉동읍장은 “연중으로 봉동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뛰어드는 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살기 좋은 따뜻한 봉동을 만들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희망나눔가게, 행복발래방 사업 이외에도 10여 개의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뜨끈한 팔죽 드시고 힘내세요~

용진농협 주부모임

지난달 22일 오전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뒤편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성과보고회가 열린 이날 용진농협 주부모임(회장 성정순) 회원들이 지역 어르신들과 행사를 찾은 손님들에게 새알 동지팔죽을 대접했기 때문이다.

커다란 들통 3~4개에서 빨간 동지팔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빨간 앞치마를 두른 주부모임 회원들이 주걱을 휘저어 팔죽이 늘어붙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그릇에 담았다.

용진읍 지동리에서 온 한 어르신은 “요즘 동지팔죽 먹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대접해줘서 고맙다”며 “팔죽 덕에 내년도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동지팔죽행사를 마련한 용진농협 주부모임 이춘자 총무는 “본래 주부대학 졸업생들이 중심이 돼 지역 봉사 차원으로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규모가 커졌다”며 “매월 다른 봉사도 하지만 연말만 되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동지팔죽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다른 해보다 크게 늘려 대략 500인분을 준비했다. 매월 한 차례씩 지역봉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성정순 회장은 “이런 뜻깊은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성정순 회장-이춘자 총무



사진제공_완주전주신문

연탄은 사랑의 온기를 싣고

완주군청 축구회, 전북은행 노조 후원받아 4가구에 2,000장 전달

완주군청 축구팀 회원들이 축구화 대신에 목장갑을 끼고 땀겨운 구슬땀을 흘렸다.

완주군청 축구회(회장 이경환) 회원 20여 명이 지난 14일 오전 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의 도움을 받아 삼례지역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평소 운동장에서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골문을 향해 나아갔지만 이날만큼은 3.5kg 연탄 한 장씩을 양팔 벌려 서로에게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아갔다. 비록 운동복을 입고 흘린 땀은 아니었지만 훨씬 값진 땀방울이었다.

완주군청 축구회 오병택(고산면 산업계) 팀장은 "연말을 맞아 축구 동아리이지만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주고자 처음 시도한 봉사였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내년에는 함께 운동하는

상대 팀 회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교육 중에도 봉사에 참여한 최성환 팀장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연탄 봉사 활동을 많이 봐 왔지만 직접 연탄을 나르는 건 처음이었다"며 "남을 위한 일이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완주군청 축구회 회원들과 유희태 완주군수, 이순덕 완주군의회 의원, 김상곤 완주군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삼례읍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완주군청 축구회 이경환 회장은 "축구회 회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돼 큰 보람"이라며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년 사랑나눔 음악회 연 완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대들 걸음에 응원의 BGM을!

배경음악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지난 15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추위를 녹인 따뜻한 선율이 울려 퍼졌다. 완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완주군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민을 위한 '제1회 송년 사랑나눔 음악회'를 선보인 것이다.

사전 예약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공예-키링' 체험에 이어서 시네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제1회 송년 사랑나눔 음악회'는 지역민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득이 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어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티켓 발권 시 라면이 1봉지씩 기부되는 형식을 통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람 인원 수만큼 모인 기부 물품은 완주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전문예술 연주자들로 구성된 완주군 최초의 민간단체 오케스트라로서, 2018년 11월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을 통해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음악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반려견들의 대축제

제1회 완주군 반려견 홍보대사 선발대회

완주문화재단이 11월 16일 ‘제1회 완주군 반려견 홍보대사 선발대회’를 진행했다.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5마리가 진(1), 선(1), 미(3)로 올랐다. ‘진’으로 뽑힌 장애 있는 유기견 출신 금비부터 교통사고 직전에 운명처럼 만난 ‘선’ 코코, ‘미’로 뽑힌 전국 103개 도시를 여행한 진돌, 산책과 미용으로 매너를 사랑하는 호두, 그리고 다정한 눈빛으로 사람과 교감하는 도토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다섯 견공들이 완주군 반려견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견의 사연을 넘어 완주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프로그램 과정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관광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 하나의 목표 완주군을 알리는 특별한 반려견들

제1회 완주군 반려견 홍보대사 선발대회 모집에는 총 100마리가 접수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마리가 2차 본선에 올라 사회성, 인내심, 호기심, 낯선 환경에 대한 대응 등을 주제로 3단계에 걸쳐 유쾌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진으로 뽑힌 ‘금비’는 유기견보호소 출신으로 올해 10살 된 골든 리트리버다. 뒷다리가 없는 장애견임에도 너그러운 활력과 친화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으로 선정된 ‘코코’는 현재 보호자가 회사 앞에서 발견해 운명처럼 가족이 됐다. 발랄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이미 반려견 사이에서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미로 뽑힌 ‘진돌’은 전국 103개 도시를 여행하는 진돗개로, 미분양시 개장수에게 팔렸다는 글을 접한 보호자가 가족회의를 한 끝에 가족으로 품은 견공이다. 능률한 자태만큼 3단계 미션도 의젓하게 수행 했다는 평이다. 소형견 ‘도토리’와 ‘호두’는 많은 중·대형견들 사이에서도 보호자와 안정감 있는 소통과 깔끔한 미션수행으로 눈길을 끌며 각각 미의 자리를 차지했다.

완주 홍보대사로 뽑힌 진·선·미 5마리는 향후 1년간 유기견 입양 캠페인,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슷품 촬영, 굿즈 제작 등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

완주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완주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어 ‘2023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 및 성과 워크숍’에서 우수 DMO로 선정돼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았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체계를 통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조직 체계이다. 이에 완주문화재단은 문화, 교육 분야 등의 공동체와 협동조합이 지역 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완주군관광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완주군 전역이 매력 있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완주형 워케이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힘찬 여행성지 개발 △완주관광플랫폼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코(선)



진돌(미)



도토리(미)



호두(미)





완주군 반려견 홍보대사 선발대회에 참가한 20마리와 보호자들. 이들은 2차 본선에 올라 사회성, 인내심, 호기심, 낯선 환경에 대한 대응 등을 주제로 3단계에 걸쳐 유쾌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Q_반려견 홍보대사 모집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는지?

A_ 우리 금비가 워낙 사람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해서 친화력은 좋지만 따로 '기다려, 앉아' 같은 훈련은 시켜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인내심 미션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잘 해주어서 기특하다. 금비에게 제일 쉬운 것은 돌발상황 미션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동 없이 덤덤한 성격이라서 그렇다.

Q_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텐데, 가장 기대되는 활동이 있는지?

A_ 반려동물 여행지 슷폼 촬영이 제일 기대된다. 금비는 차 타는 건 좋아하는데 병원만 들으면 싫어한다. 그간 금비랑 외출할 일이 대부분 병원 갈 때밖에 없었다. 대형견인 금비도 갈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에 가서 추억을 쌓고 싶다. 또 유기견 입양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 완주군 유기견 보호소에서 금비를 만났고, 그 이후로도 유기견 돌봄 및 보호 관련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펫티켓 교육 시범은 착한 금비가 잘 해줄 것 같다(웃음).

Q_완주군이 반려견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_ 반려인들의 펫티켓 등과 같은 인식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개에게는 산책이 제일 중요하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축제가 잘 운영되는 임실,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한 순천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완주군은 산과 하천이 좋은데, 이런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해서 반려견도 출입 가능한 천변 산책로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카페 외에도 식당, 쇼핑몰 등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 용진에 있는 별빛유기동물지킴이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호소를 새로 짓는 조건으로 봉사자들이 그동안 봉사를 해왔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호소 추가 건립이 잘 되길 바란다.

진 금비 보호자 김성욱 씨

다양한 여행지서
추억 쌓고
유기견 입양캠페인
참여도 기대



반려견 홍보대사 진으로 뽑힌 '금비'는 유기견보호소 출신으로 올해 10살 된 골든리트리버다. 뒷다리가 없는 장애견임에도 너그러운 활력과 친화력이 돋보인다.

제1회 완주 경제 박람회

BUY! 완주!


완주군 우수 상품 한자리에!

41개 업체 300여 개 상품 소개
이틀간 1천여 명 다녀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완주군청 어울림 광장 일원에서 '제1회 완주경제박람회'가 열렸다. 'BUY! 완주!'를 주제로 열린 경제박람회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상품, 먹거리, 서비스 등을 홍보하고, 생산자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발판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41개 업체에서 총 300여 개 상품을 소개했으며, 행사 기간 1,000여 명이 방문하여 완주의 우수한 제품들을 만끽했다.

박람회에서는 ▲완주형 생활문화 쇼룸 ▲1차~6차 상품 세일즈 ▲완주경제 스터디 체험 ▲완주 기업 홍보관 운영 ▲완주 문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경제 퀴즈 골든벨과 경제 스터디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경품 증정 행사도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처음 열린 완주경제박람회가 완주에서 만든 우수한 상품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은 농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도시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13개 읍면 책가도'

완주군 주민 10명이 13개 읍면의 상징물을 담은 책가도를 완성해 군청사 로비에 오는 20일까지 전시한다.

그동안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에서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동양화 예술프로그램 '붓끝으로 완주하다'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다. 주민들은 13개 읍면의 상징물과 역사, 동식물을 연구하고, 민화 기법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녹여낸 책가도를 완성했다.

책가도는 책을 비롯한 도자기·문방구·향로·청동기 등이 책가 안에 놓인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모두 13쪽으로 완성된 주민들의 작품에 담긴 봉동 생강, 비비정 예술열차, 상관 편백숲, 고산 마늘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면 부연 설명까지 접할 수 있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다.

작품들은 향후 아이들의 책 놀이에 사용될 수 있는 병풍 책과 리플릿 등으로 제작되어 활용될 예정이다. (공)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동양화 교육 참가자들이 읍면 상징물 담아 완성

20일까지 군청사 로비에 전시 이후엔 아이들 책놀이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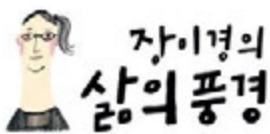




그냥 맥없이 좋은 것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해



한빛농악단원들과 함께. 왼쪽부터 소성열, 임영남, 전인숙, 김영숙, 심계택. 공연전 단원들과 합을 맞추는 모습. 이들은 늘푸른예술단에 소속되어 완주의 요양원을 일주일에 3~4번 찾아 공연봉사를 하고 있다.



화산 신공마을 심계택 이야기

덩치가 유난히 작았던 산골 소년은 도무지 흥미로운 것이 없었다. 극성스러운 장난꾸러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공부도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눈에 생기를 돌게 하는 존재는 팽과리를 든 마을 어르신이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막걸리 마시며 농을 하던 어른들은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각자 장구며 징이며 북이며 팽과리를 들고 당산나무 아래로 모이는 것이다. 마치 신분을 숨기고 일상을 살아가는 영웅들처럼. 산골 소년의 눈에는 그들이 슈퍼맨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 마을은 마을곳을 한 달간 했어요. 겨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지신밟기 한다고 집마다 돌아다니며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우물굿, 부엌굿 하면서 풍장을 치는 거지. 그 어른들 뒤로 동네 애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나는 그때 팽과리 치는 어르신을 유심히 봤어요. 그게 맥없이 좋았어요.”

이 이야기는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청년에서 중년이 되는 동안 더욱 견고해져 결국 발현되는 이야기다. 먹고 사는 일을 어

느 정도 다져놓은 뒤 98년 풍물을 배우기 위해 전북도립국악원을 찾아간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고 현재는 완주에서 알아주는 상쇠꾼이 되었다. 화산농악단의 상쇠로 시작해 현재는 고산 삼우초등학교 풍물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계택 씨(1959년)를 만났다.

쌀 두 말을 살림 밀천 삼아 서울로 향한 16살 소년
화산면 신공마을에서 나고 자란 심계택 씨는 74년에 화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향했다. 그 시절 또래 친구들은 학업보다는 생업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 당시 우리 마을 동창들은 거의 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기술 배웠어요. 그때 어머니가 준 쌀 두 말을 등에 메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서울 동대문터미널에 내렸죠. 눈이 휘둥그레졌지. 무겁기는 하고 촌놈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친척이 운영하는 요꼬(편물)공장에서 일 배우다가 양복재단 기술을 배웠지. 74년~92년까지 명동에서 양복재단사로 일했어요. 직장이 명동이었으니까 참 재미있었지. 내가 다니던 공장이 어디였냐면 명동성당 밑에 마살미용실이라고 거기가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배출한 곳이지. 그 옆에 있었어. 나도 한창 젊을 때니까 장발머리하고 나팔바지 입고 송창식 통기타 공연도 보러 다니고, 들고양이 공연도 보고 그랬죠. 마포에서 문간방 하나 얻어서 자취하면서 직장을 다닌 거지. 그때 기술을 선택한 것은

한 번도 후회 안 했어요. 그때 배운 기술로 평생 먹고살잖아요. 세탁소 하면서 옷 수선일도 하고.”

맞춤복이 하향길에 접어들면서 심계택 씨는 직업을 전환하게 되었다. 1992년에 전주로 내려와서 세탁소를 시작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해 자리를 잡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배우기 위해 전북도립국악원으로 향했다.

풍물 배우듯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걸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뒤늦게 만난 계택 씨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옷수선과 세탁일을 마치고 낮 시간에는 팽과리를 잡았다.

“98년에 시작해서 기초반, 연구반, 전문반 이렇게 3년 반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고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레슨을 받는 거죠. 장구는 이리농악 김형순 선생님께 배우고 팽과리는 부안농악의故 나금추 선생님에게 배웠죠. 배우면서 어찌다 풍물을 지도하게 되었냐면 99년 말에 내 고향 화산면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산농악단에 상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고향 마을 분들이 내가 풍물하는 걸 아셨거든. 중학교 때 고향을 떠났지만 마을 일은 놓지 않았어요. 신공마을에 청년회를 조직해서 어르신들 마을회관에 모셔놓고 공연을 한 거죠. 도립국악원 인맥으로 가야금 병창, 민요, 무용, 농악 등 공연자들을 섭외해서 무료봉사를 한 거죠. 그렇게 화산농악단 상쇠를



하면서 지도해서 몇 달 뒤에 완주군수배 대회를 처음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 뒤 2001년에는 대상을 받았지. 이상하게 상복이 있어서 대회만 나가면 상을 받았어요. 농악 부분으로 전라북도 지도자상을 받았죠. 저는 뭘 하면 대충하는 법이 없어요. 욱먹을 때까지 가르쳐요. 학생들이 지긋지긋하다고 하죠. 제가 습득이 느린 면이 있어서 더 끈질기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온 배움은 절대 잊히지 않죠.”

심계택 씨는 호남우도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다. 좌도에 비해 부드럽고 느리지만 섬세하게 연주해야 하는 우도농악에서 상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락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변형되어 다채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가 좋아하는 부포놀이는 호남우도농악에서 단연 돋보인다. 새의 깃털로 꽃 모양을 만들어 상쇠의 전립(모자)에 매단 것을 ‘부포’라고 부르는데 미묘한 고갯짓과 움직임에 따라 부포가 흔들리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을 ‘부포놀이’라 부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릎을 굽히면서 땅을 누르는 ‘오금질’이다. 자근자근 땅을 밟으며 부드럽게 이어지는 미묘한 이 몸동작을 익혀야만 농악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움직임은 오금이 기본이에요. 국악, 무용, 택견도 다 오금질이 들어가죠. 초등학교를 가르치면서 다른 건 다 따라오는데 이 오금질 가르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4학년까지는 앉아서 풍물을 가르치는데 5학년부턴 서서 치는 선반을 가르쳐요. 그때부터 오금질을 배우는데 요즘 애들은 다 K팝을 들으니까 이 몸짓을 익히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오금질을 해야만 부포놀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절대 떠들지 못하게 해요. 예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려면 화합해야 해요. 누군가가 특출나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긴 호흡으로 화합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기본을 지키는 수업을 하죠. 기초가 중요하고 노력과 끈기가 있어야 해요.”

몇 해 전 단오제 때 친방지축 뛰어놀던 아이들이 자근자근 오금질을 하며 짐짓 진지한 눈빛이 되어 서로 호흡을 맞추며 풍물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난다.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씨앗이 심어졌을까. 그들의 호랑이 풍물선생님은 풋풋하던 시절 맥없이 좋아하던 것을 잊지 않고 품고 있다가 기어코 피워내고 말았다.

완주의 문화예술인들

04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한다.

피겨플루티스트 여니윤수연 씨

긍정을 전하는 아티스트 & 완주홍보대사



여니 윤수연 씨는 2020년 한일전 국제하키대회에서 애국가와 축하공연을 하며 피겨플루티스트로 정식 데뷔했다. 세계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세계 유일한 아티스트로 피겨스케이팅을 하며 플루트를 연주한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그녀는 사실 굴곡진 삶을 살았다. 가난한 환경에서 악착같이 노력해 음대에 진학했지만 믿었던 이로부

터의 배신감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어렵게 다시 일어나 도전하려는데 큰 화재를 만났다. 삶의 중요 고비마다 그녀에게 역경이 있었다. 하지만 여니 윤수연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의 힘으로 기적을 이뤄냈고 또 그 긍정을 전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그녀는 중3 겨울이 되는 날 플루트를 처음 봤다.

“어 저건 뭐지?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에겐 먼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계속 그 악기가 생각이 났고, 전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아버지는 한국화가신데 대금 연주와 판소리가 취미셨어요. 얼마 후 부친께서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플루트 하나를 사 오셨고 선생님에게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때의 아버지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그때 ‘이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아야지’하고 결심했어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플루트를 만났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연습해 음대에 입학했다. 그 이후 이런저런 굴곡의 삶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완주를 알리는 홍보대사, 아티스트, 긍정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니(Yeoney)라는 영문명으로 세계 최초 피겨플루티스트로서의 해외 활동을 준비 중이고, 요즘은 ‘기회도 내가 만든다’라는 자기계발서를 만들기 위해 글쓰기에도 한창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는 갚으셨나요?

우여곡절 끝에 2023년 상관면 내야마을에 재건축한 백당아트갤러리가 그것입니다. 2016년에 아버지 화실 겸 갤러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공수래공수거’를 외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KBS1 인간극장 ‘윤 화백이 웃던 날’ 5부작으로 방영되기도 했죠. 하지만 화재보험도 들지 않았고 현실은 참담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당아트갤러리는 작년에 완공했는데 아버지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어드렸어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꼭 재건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빚을 내어 건축했어요. 사실 집에선 빚까지 내어서 왜 짓냐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밀어붙였죠. 대출금이야 어떻게든 갚으면 되지만 아버지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잘 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살이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련이라고 느꼈던 많은 사건이 깨달음이라고 있던 해프닝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별거, 왕따, 폭식증에서 다이어트 성공,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믿었던 이에게 시기질투, 이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제 인생 가장 힘든 시기는 우울증의 늪에 있을 때였어요.

온갖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상태였을 때 놀라운 꿈 3개를 꿔어요. 하나는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잔인한 꿈, 두 번째는 백지 같은 꿈, 세 번째는 한 줄기 빛과 함께 음악이 들리고 방긋 웃는 아기의 모습이었죠. 꿈에서 깬 그 날이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오랜만에 플루트가 보이고, 아버지 화실창고 안에서 미친 듯이 연주를 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 비우고 다시 시작하자.’ 원래 제 이름은 윤현숙인데요. 이름을 뒤집어 받침을 떼고 윤수연으로 제 2의 시작을 하게 되었죠.

피겨플루티스트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2014년이죠?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고 ‘피겨스케이팅하면서 플루트를 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겨스케이팅화를 난생처음 신어봤어요. 당시 제 나이는 마흔 살이었지만 뭐든 시작하기 딱 좋을 나이로 생각했어요. ‘안되면 될 때까지 하자.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강한 믿음도 있었고요. 차가운 얼음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며 제 안의 두려움과 처절히 싸워 이긴 기분까지 들며 다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스스로 셀프리더십이 뭔지 제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저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닌 자신을 믿고 성실하게 꿈을 향해 노력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싶어서 오늘도 도전 중입니다.



2016년 백당아트갤러리 화재 현장에서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위로 공연을 하고 있다.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 최초는 낯설고 익숙지 않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 비판과 저지가 많지만 묵묵히 소신 있게 꾸준히 노력하니 어느 순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음악도 정답이 없어요. 음악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퍼포먼스까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건 음악을 매개로 전달하는 메시지에요.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이죠.

플루트라는 악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장르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좋고, 다른 악기와도 잘 어울리고 어디든지 휴대하기 좋죠. 저는 플루트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기에 더 애정이 있는데요. 플루트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소리로 원리만 알면 남녀노소 누구나 연주가 가능한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저만의 긍정플루트 3분 레슨을 들으시면 바로 연주가 가능하죠. 3분 만에 기적 같은 연주를 하고 난 후 ‘아~ 나도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그 음악을 적재적소의 상황에 연주한다면 결과는 행복을 선물해주는 정말 멋진 악기입니다.

여니윤수연의 플루트 음악을 스스로 규정한다면

흔히 사람들의 선입견은 플루트 정도 하면 별 고생없이 곱게 자라 이쁘게 연주하겠지 생각합니다. 아버지조차 내 딸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만 태어났어도 더 잘 났을 텐데 뒷받침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일을 생각해보면 음악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라고 저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듯합니다. 테크닉만이 아닌 진짜 마음이 담긴 연주로 저 자신조차 감동하고, 또 청중도 위로와 기쁨을 받기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불평 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을 즐기는 긍정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두 딸 수인리와 미소가 있는데요, 꿈이 있는 엄마,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는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

다섯 가지 도전, 그리고 승리

완주군청 근대5종 국가대표 김예나 선수

완주군청 근대5종팀 소속 김예나(21)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 선수는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2024~2025 근대5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발전에는 총 23명이 출전해 예선전을 거쳐 상위 18명이 결승전을 진행했다. 이 중 김예나 선수를 포함해 총 7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김 선수의 여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집중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정밀하게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운동

서일초등학교에 입학해 수영을 시작했던 김예나 선수는 체력 훈련 중 육상을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좋아하는 만큼 기록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고학년으로 진학하면서 감독님의 권유로 근대 2종 시합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근대 5종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수영감독님과 근대5종 감독님이 친하셨는데 우연히 제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권유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재밌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수영과 함께 다른 종목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흥미롭고 끌리는 운동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근대5종을 배우기 시작한 김예나 선수는 전북체육중학교 입학 후 첫 경기를 치렀다. 비록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그는 첫 대회에서 "처음 근대5종 정식 경기에 긴장을 많이 했지만 이 경기를 통해 욕심이 생겼다"며 의미 있는 경기였음을 밝혔다. 이후 중학교 3학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첫 금메달을 획득한 후 점점 더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근대5종에 향한 끝없는 열정

완주군청 근대5종팀에 창설멤버로 활약하며 제43회 전국근대5종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올해 1월에 창단한 완주군청 근대5종팀은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완주군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완주군청 근대5종팀 임성택 감독은 "김예나 선수의 최대 강점은 긍정적 마인드다. 운동할 때 늘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참아내는 인내력이 강하다. 종목이 5개나 되니까 일반적인 종목보다 운동량도 많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적다"며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훈련해야 해서 피로도가 낮지 않을 텐데 잘 참고 해줘서 대견하다. 이런 정신력으로 열심히 한 덕분에 대표팀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속 집중, 마음의 강화를

천부적인 능력과 강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압도하는 김예나 선수는 본인만의 운동 방법과 체력 관리에 힘쓴다고 설명한다. 본 훈련이 끝난 야간



에는 일주일에 2회차 운동센터를 다니며 훈련을 받기도 하고 부족한 점은 개인 연습량을 늘려 채운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체력관리도 필요하지만 평소 정신적 관리도 신경 써요. 매 시합에 앞서 긴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 긴장감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해요. 가끔 힘에 지칠 때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내려는 게 제 비법이죠(웃음)." (중)



질문이 있는 이달의 그림책

키워드 - 강인한 정신과 리더십, 나를 지키는 법

알프레드 랜싱 지음, 유혜경 옮김 | 뜨인돌 | 356쪽 | 2001 | 1만4천원

새클턴의 위대한 항해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의 세 번째 남극 원정 이야기. 1914년 8월 새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이 남극 횡단 탐험길에 오른다. 거대한 자연에 맞선 2년간의 기록들이 생생하다. 배가 침몰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대원들이 믿고 기다린 대장 어니스트 새클턴의 빛나는 리더십이 가슴을 뜨겁게 한다.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진정한 리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위급한 상황에서 인듀어런스 호의 선원 모두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새클턴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새클턴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밑바탕에는 선원들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클턴을 선장으로 둔 선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에게도 새클턴 같은 리더가 나타나길 간절하게 기원해 본다.

요시타케 신스케 글, 그림. 권남희 옮김 | 주니어김영사 | 56쪽 | 2021 | 1만1천8백원

도망치고, 찾고



나에게 주는 상처가 아무렇지 않은 상상력 부족한 친구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 관계 속 나를 지키는 방법을 짚지만 명랑하게 담아냈다. 끊어낼 수 없어 고스란히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있던 나에게 다가온 책이자 평생 마음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스르륵 풀리게 만든 책이다. 힘든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나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용기라는 것을 알려준다. 아이도 어른도 관계에 지쳐가고 한다. 평생을 어떤 관계는 지키고, 또는 포기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 엄청난 에너지를 관계에 쏟아 내고 있어 진정 지켜야 할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나를 다치게 하는 관계는 허물고 건강한 관계를 찾아 단단하게 만들자. 작가는 책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다. 멀리 가지 말고 연말에는 동네 책방을 찾아 내가 닳고 싶은, 나와 함께할 책을 찾아 나를 지키자.

베르:봄 책방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1길 13

☎ 010-2074-5340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설레

#66 만나는 날

나인 이 후, 여기저기 흩어지는 사람들을 한날한시 만나는 날.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잠회...



설레는 완주에 온지 11년차 청년이다. 그림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사랑스러운 비키니소다,
새로운 힘과 해방성을 말하다


윤대라 작가 개인전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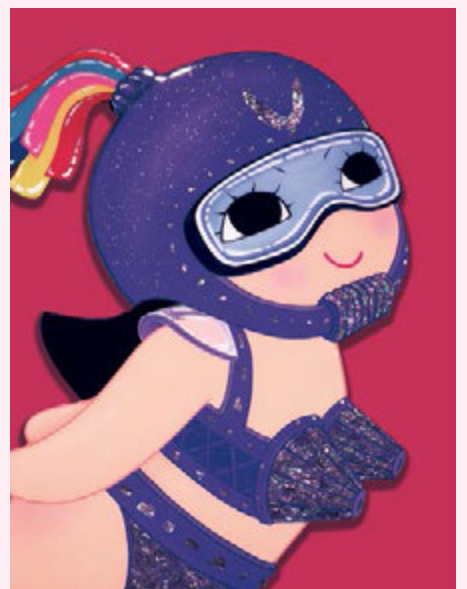
11월 29일부터 열린 윤대라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9일 성황리 마무리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2013년부터 작업해 온 '비키니소다 최종병기 그녀' 시리즈 작품을 변주하여 2023~2024년에 새롭게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무기'와 '병기'가 가진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전복시키고, 기존의 질서와 규범에 도전하는 '비키니소다'를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전달한 것이다.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윤대라 씨는 2014년 완주에 정착한 후 이곳의 삶이 담긴 그림과 피에타 시리즈, 부적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그는 이번 개인전에 대해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키니소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작품 속 창작 캐릭터 '비키니소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인 특수한 수트를 장착하고 있다. 가슴에서 총알이 발사되고 선 채로 소변을 누는 등 젠더적 규범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관객들은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비키니소다'를 통해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치유 받는다고 말한다.

작가의 오랜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완성된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냥

#윤대라 #artistDERA #울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검제,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서글픈 축복, 망각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2) 피아졸라의 [망각](Oblivion)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면서 망각으로 인한 낭패에 자주 시달립니다. 약을 금방 드시고도 약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 학교 가?”를 열 번 넘게 되물으십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워 할 일도 많습니다. 치매 노인 모시다 보면 자주 짜증이나 화를 내게 되는데 이것도 금방 잊으십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그냥 건성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어차피 또 물으실 테니까.

치매의 경우가 아니라도 망각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을 비워야 새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홍수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각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성에 의한 정보 거부 능력’을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예술창작이나 철학적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사슬에 얽매이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심하게는 또렷한 기억이 오히려 저주스러울 수 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불행한, 때로는 치욕스러운 경험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으로 침잠해버리면 평생을 괴롭히는 트라우마로 자리잡게 됩니다.

누구나 망각의 강을 건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훨훨 털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충동 혹은 욕망. 하지만 끈질기게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니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부풀린 세상의 상식’이 그것입니다.

그 진부한 상식의 기억에 묶여 자기 혁명의 결기가 한 잔 소주에 녹아버리거나 담배 연기로 혹 흩어져버리곤 합니다.

망각은 저주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반길 일인가 안타까워할 시련인가? 빠져드는 늪인가? 떨쳐버리고 가볍게 흘러가야 할 여울 같은 것인가? 탱고의 대가 피아졸라(Astro Piazzolla, 1921-92)가 [망각] (“Oblivion”)이라는 곡으로 화두를 던지자 많은 연주자들이 나름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하듯 애매하기만 합니다.

김지윤은 바이올린을 통해 비교적 밝게 반응하지만 그 청명한 현의 울림에도 슬픔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웨버(Julian Lloyd Webber, 1951~)의 첼로 또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주 정조를 이루지만 차분하게 위로하며 어루만져 주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서글픈 정조는 반데네온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하게 아름다운 슬픔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망각이 그런 것인지 음악 본연의 속성 때문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아졸라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곡은,

원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실내악으로 작곡되었지만 반데네온,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오보에, 색소폰 등으로 계속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슬프고 아름답기도 한 망각의 느낌을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반데네온 연주자입니다. 탱고를 좋아하던 이탈리아 이민자 아버지 덕에 어려서부터 탱고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온 가족이 잠시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는데 이곳에서 그는 클래식 음악과 재즈에 심취하게 됩니다. 16살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탱고밴드 트로일로 밴드의 반데네온 주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고전음악 공부를 위해 프랑스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는 오히려 탱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자기 음악의 정체성도 찾게 됩니다. 스승으로부터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음악에 집중하라는 충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깨달음에 근거하여 아르헨티나 전통음악의 하나인 탱고를 클래식이나 재즈 어법과 결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탱고, 이른바 ‘누에보 탱고’(Nuevo Tango)를 창안하게 됩니다. 춤 반주 음악을 예술음악의 경지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정작 잊지 못하고 짐처럼 무겁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연주 들으시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완두콩, 사랑의 쌀·사회적경제 기부금 전달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대표 이용규)이 사랑의 쌀 나눔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다.

완두콩은 지난 4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300만 원어치를 구입해 완주군청 희망복지팀에 전달했고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부금으로 써달라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그동안 완두콩은 해마다 사랑의 열매에 성금기탁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 이용규 완두콩 대표는 “완두콩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토대로 성장해 온 창업공동체”라며 “완두콩을 후원하는 분들의 그 마음 잊지 않고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공동체로 출범한 <완두콩>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을 주제로 마을소식지 ‘완두콩’을 매달 발행하며 지역사회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36]

유승연은 전통주를 빚고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양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고대 인류가 열매를 찾아 바위에 올랐다가 웅덩이에 고인 물이 뿜어내는 먹음직스러운 향기에 이끌려 이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그들은 알 수 없는 기이한 힘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敬畏)! 그것이 술이라고 지칭되기도 전의 세상에서 이 오묘한 액체는 물과 불, 해와 달, 산과 강, 모든 압도적인 존재들에게 경배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문명이 생겨나 인간이 술을 다룰 줄 알기 시작할 때도 술에 대한 경외심은 최초의 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 하(夏)나라 우(禹)왕은 중국 최초로 술 빚는 사람으로 기록된 의적(儀狄)이 빚은 술을 맛보고 “후세에 틀림없이 이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後世必有以味亡基國者”라고 말하며 의적을 멀리하였다고 한다. 천하를 가졌고 자신을 이미 신이라 여겼을 우왕이 한 잔의 술을 마시고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포도주를 인간 세상에 전파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야기에서도 서양인들이 술과 처음 대면했을 때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



고대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포도로 술을 빚는 모습. 위키미디어

다. 아테네의 목동 이카리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 담그는 법을 배워 자신이 담근 포도주를 마을사람들에게 먹였다. 붉은 핏빛이 도는 물을 마시고 오묘한 기운이 돌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사람들은 이카리오스가 독을 먹인 것이라 분노하여 그를 몽둥이로 때려죽이고 숲에 버렸다. 그의 딸 에리고네는 아버지의 처참한 시신을 발견하고 슬픔에 빠져 나무에 목을 매 죽고 만다. 아름다운 에리고네를 사랑했던 디오니소스는 분노하여 아테네의 처녀들이 스스로 목을 매 죽게 하는 광기의 저주를 내린다. 아테네인들은 신탁으로 디오니소스의 분노를 헤아리고 포도주를 빚어 이카리오스와 에리고네를 위한 제사를 올렸고, 포도를 재배하여 술을 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성과 문명이 맞물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경외의 대상은 하나씩 사라져 갔다. 감히 닿을 수 없던 설산도, 해와 달도 인간에겐 정

신(神)의 물방울

복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과 신의 접리로 만들어진 여겼을 술도 더 이상 신비에 싸인 ‘신의 물방울’이 아니다. 미생물을 이용해 원하는 술을 만들어내고, 기계들이 끊임없이 술병을 쏟아내는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설 때부터였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기껏 이백 년, 한국에서는 불과 백 년도 안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술은 어느새 기호품으로 전락해 너무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고, 술이 지닌 광기를 통제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로지 개인의 이성과 선택에 내맡겨져 버렸다.

사람의 손길로만 술이 빚어지던 세상에서 술은 온화했다.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빚은 술은 노동의 피로를 풀어줬고, 아픈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했으며, 친지와 이웃 간의 친밀감을 더욱 견고히 해주는 끈이었다. 사람들은 대를 이어 술 빚는 법을 가르치고 배웠으며, 그렇게 정성껏 빚은 술은 제사에 올리거나 귀한 손님과 좋은 친구를 맞이하는 최상의 선의였다. 고대 인류가 자신들의 생사를 관장하던 신 앞에 바쳤던 술, 중국 우왕과 고대 아테네인들이 처음 술을 마시고 느꼈던 경외심은 술을 빚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 모두가 다시 찾아내야 할 기억이다. 양조인은 최상의 술을 빚기 위해 노력하고, 마시는 사람은 정성껏 빚은 술에 예우를 갖춰 마신다면 세상은 좀 더 깊어지고 조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마을 소식

2024 무소음 만경강 바비큐 피크닉

2024년 무소음 만경강 바비큐 피크닉(Dear My Mangyeong)이 11월 30일 삼례읍 하리운동장에서 진행됐다. 피크닉은 완주군 지역관광추진조직(이하 완주DMO)의 지원을 받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이 심하게 방해 받는 오버투어리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무소음관광이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무소음 관광이란 소음이나 인위적인 방해 없이 조용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관광을 의미한다.

생태의 보고인 만경강에서의 무소음 관광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소음 관광을 통해 관광객은 더 깊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 아이템이다.

로컬콘텐츠연구소 손안나 대표는 “2024 무소음 만경강 바비큐 피크닉(Dear My Mangyeong)은 생태환경이 우수한 만경강에서 소음 없이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2024 무소음 만경강 바비큐 피크닉은 전라도에서 처음 시도한 무소음 관광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잘 보완하고 정비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안나 로컬콘텐츠연구소 대표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농/촌/별/곡



차 남 호

바야흐로 농한기다. 논과 밭, 한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지친 심신을 가다듬고 쉬어가는 시간. 더러 이리저리 쏘다니며 '무한대의 자유'를 한껏 누리기도 했다. 그 또한 덧없음을 느끼면서부터 농한기는 삶을 돌아보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관조의 시간이 되고 있다.

올겨울도 그랬다. 나락 거둬들여 방아 찧고 여기저기 실어 보내고, 논 임대료와 기계삿 방아삿 따위 썸 치르고 나니 바쁜 일이 얼추 끝났다. 이제 평정의 시간으로 들어서려던 참이었는데 이 사달이 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실패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내란책동.

명색이 '대통령 담화'라는데 20세기 중후반에나 들을 수 있던 섬뜩한, 그러나 촌스럽기 그지없는 언어들. 이어진 '포고령'은 첫 줄부터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원리를 부정했다. 결국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임이 확인됐다. 국회가 곧바로 계엄 해제를 결의한 건 당연하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깨뜨리려는 내란책동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들끓는 '즉각 퇴진' 여론을 외면한 채 여당에 공을 넘기고 말았다.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현행법'이 퇴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현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1차 탄핵투표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항쟁의 물결이 거센 만큼 탄핵이 되었든 하야가 되었든 큰 흐름을 되돌릴 순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 우리 사회는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어떤 사태 반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정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 그렇다면 애초 자질이 없는 자가 결국 문제를 일으켰으니 선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인물을 세우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일까. 문제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차가운 겨울 거리, 촛불항쟁, 8년 만에 재현된 상황이다. 그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뿐만이 아니다. 현행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제는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이다. 돌이켜보면 모두 8명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그 가운데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친 경우는 없었다. 설령 시작이 창대했어도 비극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 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 시스템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최고 권력자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진단이 많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집권세력 안에서도 통제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5년마다 벌어지는 대선은 권력을 둘러싼 전쟁터가 되고 만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 'OOO'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 투표해오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선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생태보전, 성평등 같은 저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국가정책이나 의제로 반영될 길은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

요컨대 40여 년에 걸친 제6공화국 헌정체제가 이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면 무턱대고 정치 일정을 서두를 게 아니라 체제전환을 위한 지혜와 상상력을 폭넓게 불러 모아야지 싶은 것이다. 정치에 관련한 '이번 생애는 망했다'고 여기며 현실정치에 기대를 접어버린 어느 촌부가 느닷없이 농한기가 흐트러짐을 한탄하며 떠올린 '마지막' 희망사항으로 읽어주기를. 비봉 염암마을

완주군의회 소식

서남용 의원,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

주민행복지수공헌 기초의회부문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1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시상식에서 '주민행복지수공헌 기초의회부문' 대상에 선정돼 12월 16일 전달받았다.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은 대한민국의 행복 증진을 위한 봉사과 기여를 인정하는 시상식으로,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나, 시상식 당일 계엄령 선포 등으로 혼란한 상황에 있어 우편으로 16일 전달받게 됐다.

서남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서남용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 힘의 아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봉사과 의정활동을 통해 완주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이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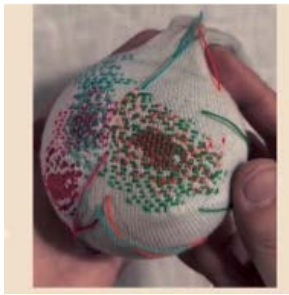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어!



다사다난하고 바쁘게 달려온 한해의 마지막 12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어!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수리수리 옷수리



낡고 해진 옷도 수리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옷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옷장 정리도 하고, 환경보호도 하며 오래 입을 수 있는 바느질을 함께 배워본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2월 21일 (토) 오후 2시
진행정보: 10,000원

소소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을 위해 준비됐다. 번화가의 떠들썩함 대신, 조용하고 정겨운 분위기에 의미를 느끼고 싶다면 청춘 방앗간으로 모이면 된다.

진행정보: 12월 24일 (화) 오후 4시

청춘 소모임 오일파스텔 전시회

청춘방앗간에서 매주 금요일 그려왔던 오일파스텔 작품들을 모아 전시한다. 부드러운 손길로 만들어낸 다채로운 색감과 따뜻한 감성이 가득 담긴 작품들을 통해 지친 일상 속 작은 위로와 힐링을 느껴보자.

진행정보: ~12월 상시



글쓰기 <읽기 다음 쓰기>

읽는 일에서 나아가 쓰는 일도 시작해 본다. 꾸준한 운동을 해야 체력이 생기는 것처럼 필력도 매일 훈련해야 쓰는 법.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나누며 꾸준히 참여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 하면 된다.

진행정보: 12월 17일, 24일 (매주 화) 오후 1시~3시

그림모임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은 아주 무른 성질의 그림 재료다. 대충 그려도 그럴 듯 하게 나온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매주 금요일 방앗간에 모여 함께하자!

진행정보: 12월 20일, 27일 (매주 금) 오후 6시 30분~9시

목욕 음악감상실

한국 대중음악 명반100 앨범리뷰, 배철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의 음반, 책을 길잡이 삼아 함께 모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진행정보: 12월 19일, 26일 (매주 목) 오후 7시~9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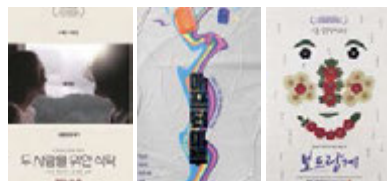
참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12월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12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벵수사드레와 완주 미디어센터가 함께하는 제 6회농한기 영화제부터 2024 시민영상제와 함께 겨울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 상영될 예정이다.

* 제6회 농한기영화제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2월 17일 (화) 오후 7시	두 사람을 위한 식탁	다큐	12세 관람가
12월 18일 (수) 오후 7시	애프터 미투	다큐	15세 관람가
12월 19일 (목) 오후 7시	보드랍게	다큐	전체 관람가
12월 20일 (금) 오후 7시	퍼펙트 데이즈	드라마	12세 관람가
12월 21일 (토) 오후 2시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드라마	전체 관람가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2월 28일 (토) 오후 2시	고질라X공	액션	12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2월 24일 (화) 오후 7시	너와나	드라마	12세 관람가
12월 31일 (화) 오후 7시	영혼의 순례길	다큐	전체 관람가



문의: 063-262-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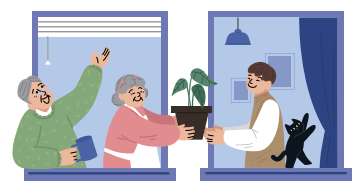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전북은행, 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 'JB어르신 문화센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12월 13일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JB어르신 문화센터 제17호' 오픈식을 진행 했다. 지난 2008년 개관한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여가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이 장시간 앉아있거나 여러 활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누전,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컸던 센터 바닥의 전기 운돌판넬을 전면 교체했으며 책상과 의자도 새로 지원했다. 또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대, 유리선팅, 블라인드 등도 설치해 장애인들의 안정적 생활을 제공했다.



2024 올해의 소셜굿즈 추천 공모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복돋기 위해 그간 지속되어 왔던 소셜굿즈한마당과 어워즈를 지속 시키기 위해 '올해의 소셜굿즈 추천공모전'을 진행한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합원과 비조합원 누구나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그 외에도 사회적 실현을 주목으로 한다면 추천대상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속한 단체를 추천도 가능하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모집기간: 12월 18일 (수) 까지

접수방법: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 공고글 추천서 다운로드 후 접수

문의: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3-905-5050, 5054

삼례읍 익명 천사, 100만 원 기탁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100만 원을 전달했다.

12월 10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기부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주민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남겼다.

삼례읍은 기부자의 뜻을 받아 기부금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유원옥 삼례읍장은 "기부자의 뜻에 맞게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기부자의 진심어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이생활문화센터 '우리도 문화봉사단' 모집 안내



구이생활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재능과 취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문화봉사단을 모집한다. 문화사업은 다양한 재능·취미(생활문화분과) 활동을 하는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시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심 있는 사람은 12월 31일 화요일 까지 구이생활문화센터에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완주한우협동조합, 인재육성재단에 2,000만 원 지정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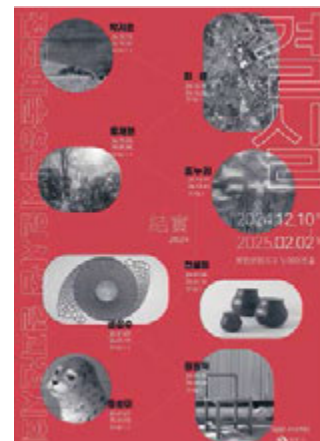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지난 13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기탁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환원 하고 있다. 이번을 포함해 누적 기부금은 총 9,500만 원에 이른다. 기부금은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장학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원호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완주한우협동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 내 아이들의 장학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2024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결과발표전시 "결실(結實)" 전시



완주문화재단의 사업인 2024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결과지원, 다시지원의 선정자가 아름다운 "결실(結實)"을 맺는다.

12월 10일부터 2월 까지 매주 마다 각각각색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여덟 명의 작가들이 일주일씩 개최 한다.

박지은 작가의 「텅에-Nest」를 시작으로 두 번째는 류재현 작가의 「FOREST, BREATH of WIND」, 세 번째는 전선희 작가의 「풍다」, 권성수 작가의 「connect」, 네 번째는 권원덕 작가의 「애호:사랑하고 좋아함」,와 끝으로 홍성미 작가의 「같이 가지 있게」순으로 선보인다. 또한 각 전시 기간마다 작가의 직접 작품의 탄생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작가 도슨트' 와소소한 다과, 도록 및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칠리(♂)
얼룩무늬가 매력적인 칠리!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약 14kg

나이: 2살

건강상태: 중성화 완료,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약 복용 중

칠리는 2022년부터 보호소 생활을 하고 있다. 대견관계가 원만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동글한 성격을 가졌다. 어린 시절 보호소에 들어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칠리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24 문화다양성 세미나

2024.12.18.
☎ 15:00-17:20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

디지털 환경 속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질문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차별 및 혐오 문제 등을
인권, 젠더, 기술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봅니다.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개회식 개회 / 내빈소개 및 일정안내 개회사 및 축사	진행자 경희령 미디어교육자
15:10~16:10	1부 주제발표1 디지털 환경 속 문화다양성의 필요성 - 이주민 차별과 혐오 문제 중심으로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주제발표2 젠더 평등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 디지털 성폭력과 젠더 불평등	강은정 안양나눔여성회 사무국장
16:10~16:20	중간 휴식	
16:20~16:50	2부 주제발표3 디지털 플랫폼과 문화다양성 - 플랫폼 속 다양성, 소수자의 표현 증대 방안	오경미 오픈넷 연구위원
	16:50~17:20	패널 및 플로어 질의응답



참여신청

참여신청 : 네이버폼 사전 신청 및 현장 접수

※ 사전 신청 시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문화다양성 굿즈와 자료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 :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063-262-3955 / 070-7777-3707

